

##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Fathers' School Involvement Through the Use of Focus Group Interviews

이현아(Hyun Ah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Parents are one of the principal agents of education along with students and teachers. The father, who is also a member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plays a role in and has responsibility for his children's education. But, in Korea, as mothers ar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fathers' school involvement has not been treated as a research subject. However,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have challenged the notion of the father's traditional role. Recently, the father who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rearing and education of his child has emerged as a new trend of the father model. It has been proven through many studies that the father's involvement has unique positive effects on his children, a phenomenon known as the "father effe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ather's school involvement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ath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ther's school participation rate was not high, while the father's desire for school participation was very high. These results are explained by the situation of fathers having no time or pathway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school. In order to enable fathers' participation, leave for school particip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and the development of fathers' activities is necessary. A father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bring about changes resulting in fathers' greater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fathers' school involvement.

---

▲주제어(Key Words) : 아버지(father),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학교참여(school involvement), 학부모(parent)

#### I. 서론

부모는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의 3대 주체이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것이다. 아버지 또한 부모로서 한 사람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교육공동체 일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교 참여는 논외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를 규명하는데 있어 어머니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부모문화는 어머니의 자녀교육 지원 활동과 관련된 문화로 설명되어 왔고 아버지들은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는 정도이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350-20110028).

\* Corresponding Author : Hyun Ah Le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olleg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10-7107-9968, E-mail: leehyun@snu.ac.kr

다(D. Lee, 2007).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나 문화가 요구하는 아버지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도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다.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통솔하던 전통적인 아버지상을 뛰어넘어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친구같은 아빠 '프렌디', 북유럽형 아빠 '스칸디 대디'가 새로운 아버지상으로 부각되는 등 변화의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경우 어머니와는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버지 효과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고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개념화한 것으로 실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Ross D. Parke, 1996). 최근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소위 '아빠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아버지상 정립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 참여의 효과에 주목하고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학교참여를 사례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학교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앞서 아버지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나, 실제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아버지 학교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아버지의 학교참여 계기와 경험, 효과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버지 참여의 의미

시대적·문화적 흐름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나 문화가 요구하는 아버지상은 달라져 왔으며 이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주로 가족 생계부양자로 사회화되면서 자녀양육에서 주 책임자로서 역할하기 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등

의 보조자 또는 주변인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Lamb, 1986)라고 표현 될 만큼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정적인 아빠, 친구 같은 아빠를 의미하는 '홈대디'와 '프렌디'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고, 북유럽형 '스칸디 대디' 신드롬이 부는 등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육아 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아버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북유럽 아빠들을 통칭하여 '스칸디 대디'라 부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MBC의 <아빠! 어디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아빠들의 육아를 소재로 한 TV예능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가정을 중시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아빠 열풍'에 한국 사회 아빠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며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Chosun Ilbo, 2013.6.26).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중 육아휴직을 낸 남성 수는 1,790명으로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2,297명이 남성 육아휴직을 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면서 공동 육아와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Hankook Ilbo, 2013.10.28).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일-가정 센터(Center for Work & Family)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명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아버지(The New Dad)'라는 제목의 변화하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일련의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이 보고서는 부성(父性)으로의 전환, 남성이 직업과 가정의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방식, 배우자와 양육 책임감을 나누는 방법, 아버지들이 직장에 요구하거나 때로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지원들에 대해 다루었다. 2011년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니는 책임감을 조사한 결과(Harrington, B. Van Deusen, F., and Humberd, B., 2011), 아버지 참여자의 약 70%가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양육 책임 또한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미국 아버지들의 상당수가 자녀에게 지니는 책임감에 대해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함께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책임감과 양

육 책임감이 결합된 오늘날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버지일수록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증가하였고 보통의 하루 일과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들의 순위를 매기도록 한 결과, 상위 세 가지는 아버지 역할의 정서적, 지원적, 교육적 측면을 포함하고, 하위 세 가지는 훈육, 재정적 지원, 일상적 보육 업무를 포함하였다. 이는 아버지 역할이 전통적인 부양자, 통솔하는 훈육자에서 온정, 지지, 지도, 자녀의 삶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Kim, N., 2011).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놀아줄 수 있는 놀이 상대자로서의 아버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상담자로서의 아버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며 친구와 같이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정서지원자로서의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인 훈육자,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아버지는 친구같이 함께 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상한 양육지향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아버지 참여의 효과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는 영국 국립 아동발달연구소에서 1958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7세, 11세, 16세의 아동과 청소년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옥스퍼드 대학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M. Lee & J. Lee, 2013). 이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버지와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높을수록 아이의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성, 인성, 성취욕구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자아 존중감과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아버지 효과'라고 한다.

최근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참여에 주목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성, 성취도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아버지 효과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국 센트럴 런던대학의 하워드 스틸 교수가 100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

과, 유년시절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일수록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하고 또래와의 갈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Steele & Steele, 2005). 특히 유아기에 아버지와 자주 목욕을 한 아동은 교우 관계가 좋고 높은 사회성을 지닌다고 보고되어, 10대들의 문제는 유아기에 아버지와 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Lamb(2004)는 아버지의 질 높은 참여가 아이의 well-being과 발달의 주요 예측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공유하는 활동을 늘리는 등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아질 때에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해주는 지지적인 아버지 참여는 아동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어린 유아에게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S., 2007).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과 아버지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가 주요 양육자로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와 유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었다(Williams, E., Radin, N., & Coggins, K., 1982). 또한 McBride, B. A., Schoppe-Sullivan, S. J., & Ho, M. H. (2005)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수준의 자원들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참여에 영향 미침에 따라 아동의 학업 성취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학교 참여가 자녀의 학업을 매개하는 유의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자녀 교육참여는 아동의 우수한 학업 수행 증가와 관련하여 어머니 학교참여와 구별되어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미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버지 학교참여가 다른 환경 변인들과 아동 학업 수행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선행연구들도 아버지의 참여와 아동의 발달 및 성장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아버지가 자녀의 인지, 학업성적, 정서, 자아개념, 성역할, 사회성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영유아의 인지 발달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인 지도가 유아의 생활능력, 특히 유아의 인성과 지적인 능력과 비교적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양육방식이 유아의 지적인 능력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다(Noh, H. & Park, I., 1999).

영유아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 및 생활 지도, 가사활동에 적극 참여할수록, 아버지가 직접 자녀와 놀이와 학습에 참여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이나 사회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Kim, N., 2011).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의 도덕성,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eol, K. & Moon H., 2006; Song, Y. & Hyun, O., 2006; Jang, Y. & Lee, Y., 2009; Jeong, H. & Choi, K., 1992; Jeong, H. & Choi, K., 1995).

Lee, S. & Yang, H. (2003)은 아버지 참여가 청소년 자녀 발달의 다섯 측면-자아존중감, 우울감, 친구관계, 학습태도, 학업 성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정도, 아버지의 물리적 접근성 및 심리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참여가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물리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갖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물리적 접근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탈행동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참여 및 아버지/자녀 신뢰관계와 청소년 발달의 여러 측면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신뢰관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모든 측면에서 건강한 발달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J., Kim, J., Lee, Y., & Chin, Y. (2012)는 아버지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특성의 관련성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부모역할을 많이 수행한다고 보고한 아동 및 청소년 자녀가 보다 긍정적인 내적, 외적 발달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 3.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난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여 유형에 있어서도 어머니와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sup>1)</sup> (Lee, K., Chung, G., Lee, H. & Choi, I., 2013)에서 제시된 결과 중에서 부모성별에 따른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를 비교해 보면, 학교교육 활동에의 참여 의식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슷한 수준인 65%로 상당히 높으나, 실제 학교참여율은 모든 영역에서 어머니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학부모 학교참여 영역인 학부모상담과 학교설명회, 학부모교육, 학부모 교육기부

및 자원봉사, 학부모회의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학부모 상담 주간 참여율은 전체 어머니 54.5%, 아버지 38.7%로 나타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학부모 상담 참여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설명회 참여 여부는 어머니의 참여율은 45.5%, 아버지의 참여율은 30.0%로 나타나 아버지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다. 학부모교육 참여율은 어머니는 29.2%, 아버지는 18%가 학부모교육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6개월간 전체 학부모의 교육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횟수의 평균은 어머니가 3.2회, 아버지는 2.28회로 아버지의 교육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횟수가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활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는 29.6%, 아버지는 21.7%가 학부모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학부모회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아버지의 학교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특히 시간부족문제, 경제적 문제, 학교참여가 낯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 제도 부족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Lee, K., et al., 2013).

한편 취업부모의 학교참여 경험과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Lee, H. and Chin, M. (2012)의 연구에서 취업한 어머니와 취업한 아버지의 학부모 학교참여 경험을 비교해본 결과, 같은 취업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학교참여율이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자녀학교행사에 1회이상 참석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아버지는 62.5%, 어머니는 79.7%로 나타나 어머니의 참석율이 높았다. 학교참여 유형에 있어서도 아버지들은 학예회나 운동회 같은 특별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교사와의 상담이나 학부모회 참여, 청소년나 급식봉사 등의 참여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취업을 했을지라도 학부모회나 교사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취업한 부모라는 조건이 같을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교참여 수준은 기본적인 참여율에서 뿐 아니라 참석한 학교행사 유형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는 것을 보여주었다(Lee, H. & Chin, M. 2012).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학부모 학교참여 의식은 어머니에 비해 떨어지지 않지만, 실제 학부모 학교참여 수준은 어머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그 참여 유형도 어머니와는 달리 일회적인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아버지 5명

1) 본 조사는 교육부 지원 하에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총 1500명이었다.

에 대해 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의 소개를 받아 학부모 학교 참여에 관심이 많고 실제 적극적으로 아버지 학교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 선정하였다. 면접 질문은 아버지 학교 참여 계기, 실제 아버지 학교참여의 경험과 효과 그리고 아버지 학교참여의 장애요인과 활성화방안 등으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1> 참조). 면접 일시는 2팀으로 나누어 1차는 2013년 12월 11일, 2차는 2013년 12월 12일에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는 대학과 회사의 회의실을 사용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1팀당 2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으며, 추후 연구자가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대상자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IV. 아버지 학교 참여 사례 분석

1. 아버지 학교참여 계기

아버지 학교참여는 모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참여 계기는 면접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녀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버지회를 조직하게 된 경우(A),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로 참여하다가 확대되어 학부모모임 대표를 맡게 된 경우(B), 가정에서 아버지역할을 위한 노력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아버지 참여와 기여로 확장된 경우(C),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족가치와 아버지역할 정립으로 보고 아버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D),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경우(E) 등 다양하다.

Table 1. Interview Subjects and Questions

subjects	interview questions
involvement motive	What caused you to involve in you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involvement experience	How much do you participate in you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What is the area of school education activities that you participate in?
involvement activities	What is the reason that you not to participate you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What is the area of school activities that is suitable for fathers to participate in?
father effects	Was there any change in your family after you participated in school? What is the change after you participated in school?
fathers’ PTA	Is there a PTA for fathers in your child’s school? How do you think it is needed to have a PTA for fathers.
involvement obstacles	What are obstacles to activate father’s school involvement? What do you think is needed to activate father’s school involvement?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and Interview Time

Date	age	occupation	resident area	children	
2013. 12.11. 14:00-16:00	A	43	CEO of publishing company	Seoul	12 years old daughter 9 years old son
	B	41	CEO of corporation	Daegu	14 years old son 12 years old daughter 5 years old daughter
2013.12.12. 14:00-16:00	C	52	manager of communications business company	Goyang	20 years old son 18 years old daughter
	D	48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Seoul	18 years old daughter
	E	44	CEO of IT company	Seoul	13 years old son 9 years old daughter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혁신학교를 찾아가는 케이스죠. 혁신초등학교를. 3년 됐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수업 혁신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교육과정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도 어머니들 참여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 대의원회 조직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아버지들이 되게 애매하게 봉 떠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뭔가 그럼 아버지모임, 아버지회, 아버지 뭐.. 명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때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2년이 된 거죠.(A)

최초에 시작은 이제 우리 자녀들. 애들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 제가 다닐 때 학교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점이 다를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실제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 올지도 몰랐습니다. 초기에는 학교 우리 자녀 다니는 학교 위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하다보니까 자꾸 자꾸 폭이 커져서 지금 대구 시내 전체 학부모모임을 대표를 맡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B)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젊은 가정들의 아버지들을 신앙으로 돌보는 역할. 그러면서 그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가정을 살리는 일들을 나중에 한 50세 이후에 같이 전문 상담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남자들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아내는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그게 어려우니까 아버지학교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걸 하나의 학습으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었고요. (E)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회복하는 건 그런 가정이란 공동체 내에서의 필요성이고, 사회적 가정이라는 건 현대 사회의 특성상에서 한 아버지가 줄 수 없는 부분. 공교육에서 줄 수 없는 부분 중에 아버지란 집단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소를 주는 게 사회적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적 아버지라는 개념. 이라고 제가 가칭으로 지금 막 붙였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을 공교육에 접목시킬 때 어느 부분이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성인 거 같아요. 사회적 경험과 비

전과 이런 것들이고, 이걸 아이들이 공교육에 집어넣을 갈래기가 없을까 고민했거든요. 선생님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해요. 아버지들에 의한 진로탐색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C)

이처럼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다르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아버지 역할을 찾고자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접사례 아버지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2. 아버지 학교참여 경험

면접대상 아버지들의 학교참여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아버지 학교참여가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A)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혁신학교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 학교에 없던 아버지회를 조직하여 1박2일 교실야영을 정기화하면서 아버지 학교참여를 활성화시켰다. 매달 둘째주 주말에 1박2일 교실야영을 하기로 정하고, 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우리가 이번에 좋은 취지로 아버지 모임 진행해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사람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충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일 년 동안 계속 굴러오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력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그냥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중략)...문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건 2013년도부터는 모임을 정리하고 컨셉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1박 2일 교실야영을 하자. 1박 2일로 매달 둘째주 주말에 교실야영을 진행해야겠다'라고 컨셉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1박2일 동안 놀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해야할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겠다. 그냥 하는 프로그램, 이제 아까 프로그램 많이 나왔지만, 장단기적 매달, 메인 프로그램 장단기 행사든 무슨 뭐 친환경 뭐 태양관 자동차를 만들든 아무튼 아이들 생태와 이런 것들이 연관된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고 그리고 아이들 몸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하니까 밥 먹고 체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희가 명목이 혁신학교인데 아버지가 아이들이 다니는 혁신학교에 대한, 혁신학교가 뭔지에 대한 강연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해서 한 시간 정도는 강의를 넣었어요. 3월 달에 예비모임하고 4월 달에 교장선생님 나와서 본인이 추구하는 혁신학교 방향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무부장님이 오셔서 생활 혁신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뭐. 외부에 혁신학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분들 초빙해서 강연회도 열었고...(A)

한편 중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E) 초등학교 때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던 축구모임을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학원 일정 등으로 바빠져서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고 하였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 학교 친구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아빠 몇 명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축구를 했어요. 애들 학원 딱 끝나고 저녁 한 여덟시나 여덟시 반 쯤. 끝나고 아빠들하고 이제 몇 명 모아서 한 시간 정도 축구공차고 음료수 마시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중학생 딱 되고 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였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그냥 같이 공차는 거 아빠들이랑 같이 부딪히는 거, 끝나고 먹는 거 이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좋거든요. 주말은 또 다 모이기가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 만약에 한다면 분명 아빠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 비추어 봤을 때, 아버지들이 체육활동 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사실 뭐 공차는 거 좋아하는 아빠들 많잖아요(E).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례로 고등학생이 된 딸의 진로와 비전을 탐색을 하다가 소위 '비전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경우(C)가 있다. 비전스쿨은 사회적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평생 추구할 가치나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멘토로서 아버지 역할을 찾아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잘 할 해줄 수 있는 참여 방법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된다. 지금은 주변 중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요청을 할 정도로 발전

했다고 한다. 보통 한 학년을 모두 맡아서 '비전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멘토링하고 마지막에 한 학년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우수한 아이들 비전 발표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아버지들은 토요일 반나절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비전수립과정에 함께하는 식으로 아버지의 학교참여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처음엔 우리 딸내미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한 달 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쑥 했거든요. 최종 아웃풋은 직업이 뭐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평생 추구할 가치와 비전을 정하는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한 번 하나씩 좋아해서 친구들도 같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친구 친구 해서 9기까지 해서 지금 1년 지났어요... (중략)...이게 의외로 needs가 많아요. 한 일 년 하나씩 커리큘럼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후배랑 이렇게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집사람도 이제 같이해요. 집사람은 프로그램 운영, 저는 멘토링과 사회적 경험. 맨 마지막 발표할 때, 학부모하고 지인들 모시고 교장선생님까지 모시고, 지난번에 3명 발표했는데 40명이 왔어요. 앉혀놓고 애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전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서, 음악가들 불러서 하우스 콘서트를 해줘요. 애들 이렇게 성대하게. 그럼 애들이 나와서 자기 비전 보드를 들고 '저는 이런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질래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딱 선언해요. 그때 이제 애가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면 애가 개념적인 건 아는데 practical한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 때 아버지가 개입할 요소가 있어요. 사회적 경험이 있으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길게는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상담을 해요.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맞아요 제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애가 플랜이 딱 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 기능이 바로 아버지가 개입할 요소인 것 같아요(C).

### 3. 아버지 학교참여 효과

면접대상자들은 아버지 학교참여 경험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등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아버지로써 역할을 찾아 스스로도 충만하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기적인 학교 참여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동네삼촌, 동네 형동생으로 친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도 줄고, 지역사회가 하나의 마을로 되살아나는 효과까지 보았다고 한다. 아버지 학교 참여의 효과가 개인과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와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처음에 굉장히 엄마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아빠들 대부분 모습은 뭐냐면, 불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서 퍼질러 있던 말이에요. 아이들은 놀아 달라 하는데 아빠는 술 먹고 쪼어 있으니 까 잘 못 놀아 주죠. 그러면 집사람은 엄청 눈치를 주죠. 한 달에 1박 2일, 한달에 한번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애들을 데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해방이 될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그걸 해결해 주니까 어머니들 호응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초창기에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이 아버지 모임에 가라고 밀어주는 가장 큰 핵심적인 거였어요. 설문조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가라고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신청해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놀다보면. 프로그램 활동하고 뛰어놀다보면 본인들이 더 좋아하게 되더라구요(A).

이제 아버지 모임이 정착이 되니까 학교폭력이나 왕따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빠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고 그러는데 애가 애를 왕따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애를 하겠단 말이죠. 다 친한데. 친하단 말이죠. 친하니까 같이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왕따나 학교 폭력의 문제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왕따 문제가 돼서 학부모들끼리 뭘 하거나, 부모가 신고를 하려다가도 아빠가 전화해서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해서 서로 풀면 되죠. 그러면 자기가 애한테 와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너가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대책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빠들이 이제 서로 힐링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엔 마을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자주 연락이 와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동사무소에서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랑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같이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소통이 되고 있어요(A).

예를 들면 학교에서 대디콘서트, 토크콘서트 해서 아버지들 다섯 분이나 세 분 모아서 스테이지 앉혀 놓고 애들하고 질의응답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와 하는 워크샵. 아버지랑 소그룹, 이렇게 미국대학가면 런치박스 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야..(중략).. 아버지들도 아이들이랑 할 수 있게 하면은. 그거 한번하면 되게 보람이 생기거든요 그럼 아버지들도 되게 좋아해요(C).

면접대상 아버지 사례들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리를 찾고 그 속에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학교 참여의 효과가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놀아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버지 스스로의 만족감과 효능감도 높아지고, 가족과의 관계와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되며, 더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성 정립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 4. 아버지 학교참여 장애요인

면접대상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시간 문제'와 '참여 통로와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장애요소라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모임과 활동이 평일 낮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버지들이 참여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역할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장애요인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제가 사실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봤거든요. 나가면 아빠들 대상으로, 주제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좋은 아빠 엄마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는데. 근데 보면 아빠들이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다 낮 시간 한 3시쯤에 해요 평일. 그게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엄마들이 그 시간대가 제일 시간 내기가 좋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밤에 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계속 되 근시간까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이해 관계가 좀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아빠는 팔호박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만 아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강구만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 아빠들 뭔가 좀 참여하는 걸 확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만해도 하고 싶지만, 뭐 이게. 그리고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정보가 유통이 안 돼요. 아빠들쪽으로는. 엄마들 그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되는데 또 교묘하게 그 정보를 차단할 좀 시키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D).

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아버지가 들어갈 만한 창구가 없더라.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럴 요청이 전혀 없더라. 두 번째는 대부분 평일 날은 집에 들어가면 여덟시, 열시 보통 이정도인데 시간이 안 되더라. 그럼 주말에 시간이 나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 모임이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부분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시간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C).

학교운영위원회는 낮에 모여서 못가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못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월차를 내거나 해야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다 하죠. 왜냐면 운영위원회나 대의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나가서 돈 벌고 막 이래야 하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A).

앞서 지적된 '시간 문제'와 '참여 통로와 역할 부재'는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참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학부모참여 현실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학부모회나 학부모모임에 참여해 본 아버지라면 누구나 어머니중심의 학부모 학교참여 문화로 당혹했던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면접사례자들도 이런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 아버지로서 학교 교육에 참석 많이 하는데, 실제 학부모회 결성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꼭 다 참석하거든요. 학부모회 결성 한다든지 가서 겪어보고 제가 참석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버지는 진짜 저 혼자예요. 학부모회 결성에 들어가는 것도. 학교 공개 수업할 때도 거기가면 아버지는 거의 다섯 손가락에 셀 정도로 그 정도로 참석이 정말 미미하시거든요(B).

저는 학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다거나 그런 요청이 오는 게 있으면 거의 100% 다 참여하려고 하

는데, 특별히 없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 강당에 남자 딱 2명 있더라고요. 정말 창피해가지고...특별히 갈 일이 없었어요. 뭐 체육대회 뭐 이런 것 빼고는. 마치 그 남자그룹에 여자 있으면 여자들은 그 분위기를 쉽게 견디는데 여자들만 다 있고 혼자 남자 있으면 남자들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E).

##### 5.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아버지 학교참여를 활성화 방안은 앞서 제시한 아버지 학교참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장애요인인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학부모참여를 지원해주는 휴가제도가 있다면, 학부모활동 시간대를 낮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주말로 옮긴다든지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아버지 스스로 자녀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인 아버지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을 민방위나 예비군 교육시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직장 같은 데에도 아빠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뭐 이런 게 있고 참여하려면 이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만 되어도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하지 않습니까?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런 데에도 그냥 무슨 수요일 날 가족의 날 이래서 일찍 퇴근시키고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만약에 자기 직원들이 참여한다면 그게 낫 시간이든 뭐 좀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한다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아주 실효성이 있죠(D).

일반적인 회사원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아버지들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365일 맨날 저녁에 야근하는 직장 거의 없거든요. 시간 나실 때는 모임가셨다가 술도 드시고. 보통 술 드시는 분들이 많습시다.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면 뭐 토요일도 같이 놀 수 있고 일요일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평일날 저녁에도 조금 일찍 가서 애들이랑 밥을. 요즘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밥상머리교육. 그런 부분들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아버지들이 참여 많이 못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들은 이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어머니들. 학교교육은 어머니들 몫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강하고. 또 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 시키고. 시간이 없고 일에 지친다 그런 합리화를 하시는데 저녁에 좀 술 좀 적게 드시고 그런 모임 한 두 군데 안 가시면 그래도 충분한 정도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B).

민방위 교육하고 예비군 교육 받을 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아버지들을 하나씩 모아서 교육 시키는 나라가 전 세계가 없잖아요 그 때 가스 불 잠그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때 아빠들이 알아야 할 그런 밥상머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해주면 효과가 좋죠(D).

두 번째 장애요인인 '참여 통로와 역할 부재'에 대해서는 아버지 학교 참여의 통로로서 아버지회를 조직하고, 아버지가 잘 할 수 있는 학교참여 영역을 발굴하여 아버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아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생활경험을 전수하거나 직업이나 진로를 지도해주고, 학교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아버지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손꼽았다.

아버지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들한테 학교에서 어떤 롤을 만들어주고, 내가 갔을 때 아 이게 상당히 보람있는 일이거나 해야 참여하지 싫어요. 제가 올해 47살인데 나이가 조금 한 살 더 들 때마다 굉장히 뭔가 그 후세대한테 뭔가 좀, 내가 이제껏 경험한 지혜, 삶의 어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조금 가르쳐주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빠들도 특히나 신중년,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후세한테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활발한 사회생활을 통해 집적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전수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성남성과 자녀들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물 흐르듯이 흐르면 우리 사회도 훨씬 윤택해질 수 있겠죠, 정서적으로나 어떤 지성적으로나. 그래서 미국같은 경우는 왓치족이라고 해서 미국의 아빠단체 아빠운동 중에 하나인데, 아빠들이 이제 한 번씩 학교에 가요. 그래서 hallway, 복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거나 한 번씩 하여튼 간에 아빠들이 학교, 학생들 생활 속에 가서 롤이 있는 거예요. 갔을 때 '아 내가 참 보람 있다'고 느낄만한....(중략)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거. 누구나 자기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설 한 권이잖아요. 거기에서 몇가지 뽑

아서 전달해주는 계기만 마련되면 누구나 좋아할 거라는 거죠(D).

아버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들이 전부 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현재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진로 쪽, 진로나 직업 쪽에 대해, 최근 자율학교제도도 나오고 하고 시작을 하는데, 각 교육청마다 가장 문제가 직업군이 없다는 거죠. 직업군이나 직업,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 체험시키고 보내고 싶어도 협조해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장 골머리 썩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들이 모두 직업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 진로에 대해 협조하게 하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아버지의 이상적인 참여라고 생각해요(B).

세 번째 장애요인인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참여 문화'에 대한 방안은 앞서 제시한 아버지 '참여 통로와 역할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학부모회가 지나치게 어머니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모임을 별도로 조직하고 아버지의 특성을 살린 학교참여 활동을 개발하여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아버지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은, 이런 쪽에, 계기를 만들어서, 계기를 만들어 주면 아버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재로서는 어머니들 밖에 없는데, 거기 끼어들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모임 별도로 만들어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아버지가 학교에 참여하면 자녀들 특히 남학생들 사교치는 거, 학교폭력이라든가 많이 줄어듭니다(B).

엄마들이랑 또 같이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엄마들은 이게 좀 스케일이 작아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저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 위주로만 고민을 하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게 너무 철저한 거죠. 사실 아빠들은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유하거든요. 아무튼 엄마들이랑 사업을 두 세 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따로 그냥 이렇게 같이 공존

해서 같이 하고. 왜냐면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모여서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게 엄마가 해주지 못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A).

## V. 결론 및 제언

본 고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버지상’의 변화가 학부모로서 아버지의 학교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아버지의 학교참여 계기와 경험, 효과, 활성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를 탐색해 보았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면접한 아버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초기 참여 계기나 동기는 다르지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아버지 역할을 찾고자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아버지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로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아버지인 경우, 가정에서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아버지 참여를 시작한 경우라도 아버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다보면 활동범주가 점점 넓어져 지역사회 단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참여가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분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는 학교에서의 아버지 학교참여에도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아버지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아버지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학교가 아버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면접대상 아버지들의 학교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자녀의 학령급에 따라 학교참여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아버지 학교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와 학원일정 등으로 아버지 학교참여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자녀가 고등학생인 사례에서 진로와 비전 탐색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아버지 참여가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녀의 학령급에 따라 아버지 학교참

여의 기회와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아버지 학교참여 활동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자녀의 학령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자녀의 학령급에 따라 적합한 아버지 학교참여 유형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면접대상 아버지 사례의 경험은 아버지 참여를 통해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버지효과를 몸소 체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리를 찾고 그 속에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효과를 입증하였다. 특히 아버지 학교참여의 효과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아버지 자신이 만족하고, 아버지로서 효능감도 높아지고, 가족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정 건강성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정립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아버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차원에서의 아버지효과를 뛰어넘어 아버지 개인-가정-지역사회 단위로 연결되는 아버지 효과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넷째,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 학교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조사(Lee, K., Chung, G., Lee, H. & Choi, I.)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교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참여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집단면접조사에서 아버지들은 참여 시간문제와 참여 통로와 역할부재 문제, 어머니 중심의 학부모참여문화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학교에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 학교 참여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 연구를 토대로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버지 학교참여 영역을 개발하고 학교참여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아버지들의 학교참여 경험과 요구를 보면, 1박2일 캠프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및 인생설계를 이끌어주는 비전스쿨,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한 체육활동 등이 아버지 학교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버지 학교참여 영역 개발과 동시에 학교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기존의 학부모회와 별도로 아버지회를 조직하거나 학교차원에서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아버지의 학교참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꼭 참여해야하고 아버지가

더 잘 할 수 있는 학교참여 영역이 있고, 그러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시스템화된다면 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의 학교교육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아버지 역할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선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시간문제'는 아버지 학교참여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 시간문제는 두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직장일 등으로 절대적인 참여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직장일로 인해 학부모 학교참여가 힘든 것은 아버지 뿐 아니라 취업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이다. 취업한 부모의 학부모 학교참여를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Lee, H. & Chin, M., 2012)은 주지의 사실이나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취업한 부모가 학부모로서 학교참여가 힘든 것은 현재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전업주부인 어머니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대부분의 활동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학교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이 집단면접조사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의 학교참여 시간문제는 우리나라의 일중심의 기업문화와 어머니중심의 학부모문화가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사회전반에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동인은 '아버지교육'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 학교참여의 주체가 아버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아버지교육이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중요하다. 집단면접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 때 아버지교육을 필수로 하는 방안까지도 제안되는 등 아버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고유한 영향력을 '아버지효과(father effect)'라 할 정도로 아버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참여한 효과가 자녀의 사회성과 인성, 정서발달, 인지발달과 학업성취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아버지 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아버지 참여는 자녀의 성장발달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의 자존감과 효능감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버지상', 새로운 '아버지역할'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아버지 학교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버

지 사례를 통해 아버지 학교참여 실태를 탐색하는 초기 연구이며, 향후 아버지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일부 아버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아버지 학교참여 수준은 아버지의 직업 특성이나 자녀의 학교급 등 가구 및 가족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양적 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의 질적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abrera, N.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S.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toddlers to pre-k, *Applied Development Science*, 11(4), pp.208-213.
- Chosun Ilbo. (2013.6.26). *Join the Dad Crazy with reading*. Retrieved from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6/2013062602143.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6/2013062602143.html).
- Flouri, E.,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3), 399-406
- Hankook Ilbo. (2013.10.28). *Run into Family.... Scandinavian Daddy is popular*. Retrieved from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10/h2013102803360221540.htm>.
- Harrington, B. Van Deusen, F., and Humberd, B. (2011). *The New Dad: Caring Committed and Conflicted*. Research report. Chestnut Hill, MA: The Boston College Center for Work & Family.
- Jang, Y. & Lee Y. (2008).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Involvement on Child's Self-Concept and Prosocial Behaviors, *Journal of Family Relation*, 13(1), 187-206.
- Jeong, H. & Choi, K. (1992). Father's Child - 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men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3(1), 38-51.
- Jeong, H. & Choi, K. (1995). Father's Child - Rearing Behaviors, Children's Sex - Role taking, Children's

- Emotional Respons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1), 33-47.
- Kim, N. (2011). Early Childhood Parents' Perceptions of Good Father's Roles and Social Roles for Good Father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79-98.
- Lamb, M. E.(1986). *The Father's role :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 Lamb, M. E.(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Lee, D. (2007). *A Study on Parents Culture-focused on child education support activities*,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ee, H. & Chin, M., (2012). Experiences of School Participation and the Need for School-Participation Leave for Employ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6), 119-130.
- Lee, J., Kim, J., Lee, Y., & Chin, Y. (2012). A Meta-analytic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151-173.
- Lee, K., Chung, G., Lee, H. & Choi, I. (2013). *2012 Survey of parental home education and school involvement*. Seoul, Korea: Center for Family- 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M. & Lee, J. (2013). *The power of Bigfather effects*, Goyang: Daumsanggak.
- Lee, S. & Yang, H. (2003). *Father's involvement in education and youth development*, Seoul, Korea: Samsung Social and Mental Health Institute.
- McBride, B. A., Schoppe-Sullivan, S. J., & Ho, M. H. (2005). The mediating role of fathers' schoo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01-216.
- Noh, H. & Park, I.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 Rearing - Behavior and the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4), 231-245.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pp.43-58.
- Seol, K. & Moon, H. (2006). Relationships amo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Child'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7), pp.1-9.
- Song, Y. & Hyun, O. (2006). The Effects of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5), 19-34.
- Steele, H., & Steele, M. (2005). Understanding and resolving emotional conflict. In Klaus E. Grossmann, Karin Grossmann, Everett Waters (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pp. 137-16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illiams, E., Radin, N., & Coggins, K.(1982).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 School Performance of Objiwa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2(4),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접수일 : 2014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4년 08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0일